I ♥ DOKDO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독도를 지키려는

독도소식지

제20호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발행일 : 2015년 7월 5일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43번길12 부경빌딩201호
TEL:051-3363-114. FAX:051-3363-112
ds5ean@naver.com
H·P : 010-6504-6510

계간20호 발행자 편집자: 이상훈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 /신고번호: 동래 바00001/신고일 2012.05.18./ 인쇄(주)동아인업 (051)807-0600

독도소식지 20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는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으려는 일념에서 만든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를 보낸 우리 민족이 그 역사를 알면서도 이기주의에 팽배하여 남이 지켜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또 식민지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당신은 독도의 주입니다.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전달합시다. 독도를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지켜야합니다. 독도소식지는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문제를 냅니다.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ㅇ 틀리면 x 답을 생각하고 3면에

아름다운 섬 독도는 한국의 땅입니다.

우리 모두 동해라고 부르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동도와 서도 두 개의 섬입니다. 신라 이사부장군이 우산국을 신라로 복속시킨 이래 지난 15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독도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스러운 그 모습을 느끼고 싶어 그 섬에 가려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바다 갈매기를 만나고 싶어 그 섬에 가려합니다. 그렇지만 성스러운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독도를 욕심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깨지기 시작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이들이 언감생심 독도를 탐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넌센스이지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 처음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하더니 러일전쟁이 끝난 직후엔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편입 합니다. 그리고도 명분이 없다보니 이젠 아예 '원래부터 자기네의 고유의 영토였다고 우깁니다.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도 짐작 했듯이 바로 우리 옆 나라인 일본입니다.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부끄러운 행동을 삼가고 과거를 바로잡고 우리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야 말로 갈수록 복잡화되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세계를 이끌어가는 동반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더 이상 우기지 말고 독도를 털어버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함께 미래로 미래로 미래로 나아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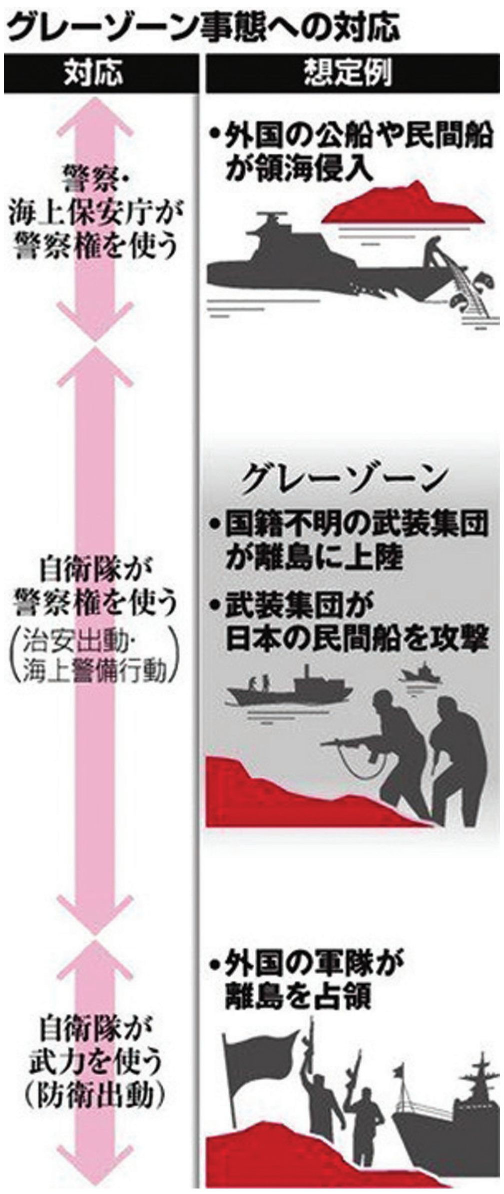
2015년 6월에 독도사수연합회

홍보대사 독도가수 서희

후원금 주신 분

주아양	부산시수영강변대로298	3,700원
최종국	강원도홍천군북방면상화계리	8,000원
김영찬	부산시동래구충렬대로140번	5,000원
정민 ?	부산시수영구망미동2801호	25,000원

너까지 왜 그래?… 일본 진보진영 교과서 "독도, 한국에 빼앗겨"



트위터의 일본 네티즌(@dra*******)이 중학교 교과서 내용을 알리면서 올린 그림

입력 2015-04-06 21:04수정 2015-04-06 21:53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이번 검정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강경한 표현을 명시한 교과서는 3배 이상 늘었다. 2011년 검정 통과 본에서 이런 주장을 담은 교과서는 '교육출판'의 '지리' 교과서 및 '도쿄서적' '이쿠호 사' '지유 사'의 공민 교과서 등 모두 4종이었다. 일본 정부가 현행 중학교 교과서 18종 전체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명시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표현을 담은 교과서도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우리 여론은 분노했다. 6일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교과서는 단 한 종도 빠지지 않고 독도 관련 내용을 담았다. 역사(8종)·공민(6종)·지리(4종) 등 3개 과목의 모두 18종이다. 현행본인 2011년 검정 통과 본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건 18종 중 14종이었다. 3종은 별도의 기술 없이 동아시아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만 표기했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서는 총 13종으로 늘었다. 지리가 1종에서 4종으로, 공민이 3종에서 5종이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 종전에는 단 한 곳에서도 적시하지 않은 불법 점거 주장이 절반 수준인 4종에 포함됐다. 역사 기술은 종전보다 후퇴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1905년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국 령으로 편입했다는 내용이 역사 교과서 8종 모두에 담겼다. '도쿄서원' '일본문교출판' '제국서원' 등 출판사 교과서는 독도와 관련한 역사적 경위를 상세히 기술했다. 에도시대(1603~1867) 초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 한국의 '이승만 라인' 설정 등의 내용을 실었다. 이승만 라인은 1952년 선포된 '평화선'이다. 전년에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미·일 평화 조약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제외되자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해상구역이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 '양심세력'으로 통하는 진보진영의 교과서조차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현지 진보성향 시민단체 '어린이와 배우는 역사 교과서 모임'의 주도로 발간된 '마나비샤'의 역사 교과서는 중학교 교과서로는 처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뤘다. 1990년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소개하며 이를 계기로 1993년 '고노담화'가 발표됐다고 기술했다. 이 교과서는 검정 전 군 위안부 내용을 두 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기술했다가 '불합격' 판정을 받고 절반으로 줄였다. 이 역사 교과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았다. 2011년 검정 통과본에서는 별도 기술이 없었지만 이번에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편입됐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과거 침략 역사와 관련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팽팽히 맞서면서도 영토 문제에서만은 일본 국민의 인식이 사실상 동질화된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개정은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을 강화하고 있는 아베 신조 내각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했다. '정부의 통일적 견해 및 최고재판소 견해가 있을 시 이에 바탕을 두고 기술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교과서 제작 및 교사의 지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독도와 북방영토,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일본의 '분쟁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도록 했다. 우리 여론은 분노했다. 인터넷에서는 "아베가 시키는 대로 교과서를 만드는 나라" "마지막 양심까지 버린 최악의 교과서"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한 네티즌은 "왜곡 교과서를 배운 세대가 성장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한 세기를 맞을 때쯤에는 일본의 모든 국민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우리 정부는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청사로 불러 강력하고도 엄중하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오후 4시쯤 벳쇼 대사를 만나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일본 정부가 역사 퇴행적 자세를 버리고 과거사를 직시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 대표로 낸 성명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일제 강점을 진출로 왜곡한 역사교과서 파동 사과)와 1993년 '고노 담화'(위안부 사과)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독도 지키려면 이론과 논리로 너도나도 협력하자.

http://cafe.naver.com/docdoinkorea
http://dokdomk.com
비영리 단체 : 독도사수연합회
네이버 독도사수대
구독신청 : TEL.051- 3363-114 FAX.051-3363-112 HP.010-6504-6510

독도사수연합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맞설 준비로 독도세미나등 대회에 참가 합니다.

4월18일 부산시민공원박람회에서 독도전시물

4월18일 전시회에 격려차 오신 독도단체장님들

버지니아주 동해병기 피터김 회장님 특강 이상훈 참석

5월25일 자원봉사자 강지훈군과 장유정 회장님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독도 한국 땅 현수막

5월30일 독도해병지킴이 이선호박사 강연

6울4일 한국해양대 황우여부총리 강연에 서울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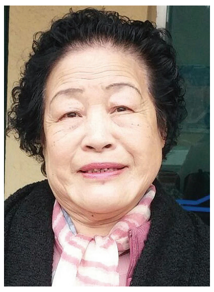
좌로부터 장태현, 문재희, 이상훈, 장유정, 강형찬

6월11일 박명재의원 해양대 특강 독도모형기증

본회 서울지회장 장태현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독도사수 연합회 서울지회 지회장을 맡게 된 스마트 폰 방송인 imtv 대표 장태현 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독도사수연합회서울지회장으로 추천 해 주신 독도사수연합회 이상훈회장님을 비롯해 독도사수연합회 회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사람이지만 독도사수연합회 이상훈회장님과 독도사수연합회 회원님과 함께 의기투합하여 맡은바 서울지회 지회장으로써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 주실꺼라.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독도사수연합회 이상훈 회장님의 순수함과 어려운 과정에서도 독도를 지키려는 그 큰 뜻에 감동하여 독도사수연합회에 작은 힘이나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온 국민 여러분 독도를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침략을 막기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중에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함께 해 주실 분은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도사수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장 장태현 올림 지역번호없이 “1636” 누르고 "아엠티비" 말로하세요. 타 지역은 010-6504-6510

독도사수연합회 고문 송정숙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회 안중식고문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생전에 방범활동을 하시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다가 어느 날 우연히 독도소식지를 보시고 독도의 위험성을 아시게 되고 독도운동에 도움을 주자는 생각에서 회원 가입을 하여 회비를 내니까 회장님이 나이 많다고 고문으로 올려주셨는데 남편이 세상을 하직하셔서 남편의 뜻에 따라 제가 혼자 살며 생활은 어렵지만 후손들에게 나라 땅을 빼앗긴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으려고 남편이 하시든 독도사수연합회 회원이 되고자 하니 이상훈 회장님이 연세가 있으니 회원으로 모시기보다 고문으로 모시겠다고 하셔서 고문으로 생각하며 독도사수연합회에 조금의 도움이 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7살 때 독립이 되었지만 일본 순사는 아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지금 나라가 편안한 것도 우리가 지키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못 지키면 또 다시 식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78세인 저도 하는데 여러분께서도 같이 노력합시다.

독도사수연합회 고문 송정숙 자택에서.

본회 경북지회장 옥봉 스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옥봉 스님 입니다. 독도사수연합회 회장님과 지회장님 지회 회원님 들은 애국자입니다. 정치인도 하지 않는 거국적 나라 지키기 운동을 하시는 회원님 존경합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다체널로 홍보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법인단체로 거듭나서 지회회원님들이 정치에도 진출하시어 힘을 실어주신다면 명실상부한단체가 될 겁니다. 남을 돕고 이타심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사심과 편견을 버리고 한 없이 바르고 평등한 한마음으로 우리 독도사수연합회 회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직무를 다함으로써 나라의 기강이 바로서고 사회질서가 정착됨을 온 국민들이 아시고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작은 힘이 되고자 경북지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힘을 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독도사수연합회 경상북도지회 옥봉 스님 합장 연락처 010- 4851-6751

본회 충북지회장 한명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를 사수하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이상훈 회장님의 활동에 감명을 받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독립투쟁으로 나라를 찾았으니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한국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키우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뭉쳐서 막아냅시다. 36년 동안 핍박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대마도를 빼앗고 이제는 독도까지 빼앗으려는 일본의 침략근성에 치가 떨립니다. 역대 정부와 정치인들은 무엇이 두려운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주권행사를 확실하게 못하고 있으니 민간단체들이라도 나서서 일본의 교활한 침략야욕을 전 세계에 알려야만 합니다. 힘을 합쳐서 싸우고 후세들을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선배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충북지역에 활동하실 분 연락처 010-6437-9936 독도사수연합회 충청북도 지회장 한명석 올림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독도문제의 위기와 기회 5편

려해연구소
RYEO HAE INSTITUTE
麗海研究所 김영구 교수의 해양법포럼

그러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요건은 현 한국의 영토정책인 소위 "조용한 대응 정책"이 기본적인 법적 무지(無知)와 이론상의 혼돈(混沌)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일이다.

국가 최고 통치권자를 포함한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이 사실만 정확히 인식하면 현재의 잘못된 영토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나. 정책 재정립을 위한 국가 제도적 과제
—《영토정책 기획조정실》 신설—

일본은 아베 신조 신 내각이 정권을 잡은 직후인 지난 2013년 2월, 영토문제 전담기구인 '영토 · 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 산하 기구로 신설했으며 그 운영예산으로 120억 엔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일본 정부의 공격적인 자세에 비교해서 한국 정부는 어떠한가? 한국정부는 각 부처 마다 각양 각색의 독도문제에 관련된 연구기관을 부설로 가지고 있으며, 일본이 공격적인 영토 정책을 내어 놓을 때마다 관련 부처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task force가 조직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들이 소비하고 있는 국고 예산도 만만치가 않다. 그러나 일본이 여러 가지 공격적인 만행을 감행해도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이에 대응한 기록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핑계는 《조용한 대응 정책》이 기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그대로 말한다면 한국 정부 내에는 독도문제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부서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야 정직한 표현이 될 것이다. task force이건, 연구소이건 그들이 독도문제를 빙자해서 아무리 막대한 국고 예산을 써도 그들에게는 궁극적인 책임의식이 없다. 책임을 묻는 자도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4. 영토 정책 재정립을 위한 실사구시적(實事求是的) 과제

지난(2013년) 8월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내각부가 지난 6월20일부터 11일간 전국적으로 일본사람 성인 3000명(1784명 응답)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 정권이 영토 문제를 둘러싼 자신들의 주장을 국내외에 널리 알린다는 목적으로 지난 2월 설치한 내각 관방(내각부 소속기관)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실시한 것이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94.5%에 달했다. 독도를 안다고 답한 사람에게 독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복수 응답으로 표시하도록 했더니 '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가 63%, '시마네현에 속한다'가 62%,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가 61%였다고 일본 내각부는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독도의 존재를 일본인 절대 다수가 인지한 것과 달리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응답은 61%를 기록한 것에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앞으로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홍보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다케시마에 대해 관심이 있다'와 '굳이 말하자면 관심이 있다'는 답이 71%에 이르렀다. 역시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관심의 영역에서 '일본의 다케시마 영유의 정당성'을 꼽은 응11답이 67.1%, '역사적 경위'가 53.9%,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대응'이 38.6%로각각 나타났다.우리 정부는 여론조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대해 2013년8월 2일 외교부가 '입장표명'의 형태로 일본에 엄중 항의를 했다.

〈다음호에 계속 독도사수대 에서 전부 볼수 있음〉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독도주인은 주인이다. 월드 컵 축구 때 서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응원을 했다. 그런데 독도는 관심이 없다. 독도행사에는 1천명도 잘 모이지 않는다. 독도를 빼기면 안 되지 할 뿐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별로 없다. 독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이 1만 명중 한명 있을까? 독도 지키는 운동에 별 도움을 못 준다. 할 줄 몰라서 못 한다는 사람에게 서명운동 하라면 못 한다. 회원가입해서 월 회비 1000원을 내라 해도 못한다. 독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못한다. 독도지킴이라 자처하는 분들 중에도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 별로 없다. 당신은 독도 주인이다. 독도 지키기 위하여 당신은 무얼 하였느냐? 아무것도 없다. 버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금 다시 생각 해 보십시오. o 요? x 요? 독도를 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독도운동에 참여 하세요. 회원 가입부터 하세요. 〈편집자〉

아래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

일본은 국제재판을 해서 독도를 뺏으려 한다. 국제재판을 안 하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때를 생각해서 국제재판에 이기려면 독도연구를 많이 해야 이길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살아야 이길 수 있다. 독도를 관광지 만들어 세계각국에 한국의 관광지로 홍보하면 더욱 유리 해진다.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를 잘 모셔야 이기며 독도바다가 공동수역이면 재판에 더욱 불리하다. 정부가 하면 우리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안 하니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론이 되면 정부는 투표 할 때 표를 의식해서 여론 따라 정책을 바꿀 것이다. 서명 많이 하면 여론이 된다. 아래 서명용지를 복사해서 서명 받아 보내주세요.. 〈독도사수연합회〉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 내 · 외에 홍보 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 · 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번	성 명	주 소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운동자)
네이버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koinkorea.cafe
보낼곳 607-809 부산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명장동)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477-16)
독도사수연합회 E-mail : ds5ean@naver.com HP : 010-6504-6510 독도 이상훈

https://www.facebook.com/groups/dokdomk/ http://dokdomk.com
비영리 단체 :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연합 구독신청 : TEL.051- 3363-114 FAX.051-3363-112 HP.010-6504-6510

독도 위험해졌다…

미 · 일 군사밀월 '세계경찰 자위대'

對중국 방어전략 탑승한 일본…전범국서 전승국과 대등한 지위 '한국 고립'

김도현기자(dh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5-04-28 17:06:55

1941년 12월 7일 아침은 여느 일요일 오전과 다르지 않았다. 아이들은 들에서 뛰놀았고 어떤 가족들은 삼삼오오 교회로 향해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하지만 평화롭기만 할 줄 알았던 그 때 전쟁의 그림자는 삽시간에 진주만을 덮쳤다. 하늘 가득 일본 전투기가 하와이 상공을 지나쳐 진주만에 주둔 중이던 미군에 기습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 일로 세계강국 미국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자국 내 전쟁에 대한 여론도 높아져갔다. 그러자 당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을 비롯한 독일 · 이탈리아 등에 선전포고를 하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됐고, 이후 1945년 8월 6 · 9일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알리는 원자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하게 된다.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미국의 전쟁은 결국 일본 본토에 사상초유의 대량살상 무기인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종전을 고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일본 내에 주둔하며 일본이 무장할 수 있는 날개를 꺾어 놨다. 하지만 70여년이 흐른 오늘날 미국이 일본의 군비확장에 다시 날개를 달아주는 모양새가 연출돼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미^일 양국이 어제(27일)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을 공표, 두 나라는 70년 만에 원수의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우방으로 바뀌게 됐다. 지난 1997년 개정당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을 가능하게 했던 미국은 이제 일본의 군력을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 사실상 전범국의 지위를 온전히 풀어 준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물론 제약이 많은 상태지만 일본이 자신의 영토 및 주변국을 넘어 전 세계로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아픈 역사를 경험한 아시아국가들은 긴장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양국 간 방위협력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과 국내에 미칠 영향 및 여론 등을 진단해 봤다.

<중략 지면관계상 중단 아래주소에 전부 있음>
http://cafe.naver.com/docdoinkorea/5244

독도소식지 20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본회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랍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시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입니다.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 지킨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독도소식지를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다른 분께 전해 주십시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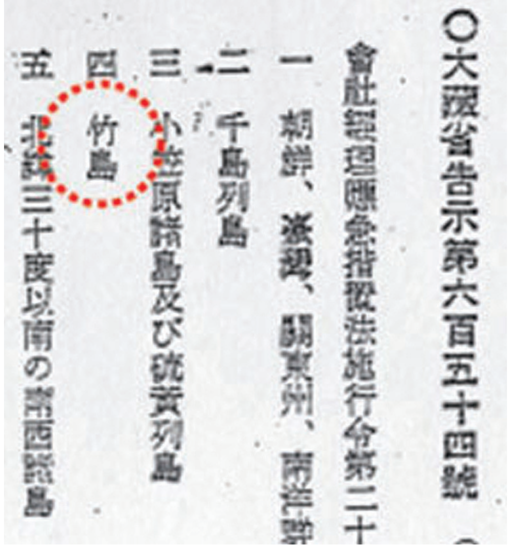
▪ 후원하실분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김장훈 독도 간담회'에 정부 인사 나타날까?

[CBS노컷]입력 2015.05.12 16:39[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외교부와 교육부 등 5개 부처에 초대장

정부의 무기력한 독도수호 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해온 가수 김장훈이 독도 간담회를 개최한다.김장훈의 소속사 공연세상은 12일 "김장훈 씨가 많은 언론과 학자들과 함께 독도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며 "정부 부처 관리 분께도 초대장을 보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독도간담회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진행된다. 김장훈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정부의 무지무능한(전지전능해도 될까 말까 한 데) 독도 대책에대해 여과없는 비판을 던졌으니 내일 간담회에서 후회 없이 다 쏟아내고 제 비판의 당위성과 무게에 대한 책임을 지겠노라 생각했다"며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이어 "무능함? 무의지? 무관심? 너무 너그러운 단어여서 뭐라고 해야 할지. 생각 같아서는 시원하게 욕 한마디 던지는 게 깔끔할 듯도 한 데"라며 "학계와 함께 10년 동안 수없이 충언했으나 정부는 단 한 가지도 듣질 않았고 일본의 점점 더 강해지는 전방위적 공세에 이제 더 이상은 물러날 곳도 없고 끝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암묵적으로 대통령의 의지인데 요원하겠죠. 아니, 불가능하겠죠? 내일 두고 볼 일입니다. 아주 두고 볼 일입니다!"라며 정부 측의 안이하고 무기력한 태도에 대해 날을 세웠다. 김장훈이 공개적으로 간담회에 참여를 요청한 정부 부처는 외교부를 비롯해 교육부, 문화관광체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등 5곳이다. 그는 "다른 부처도 (간담회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참여를) 환영한다"면서 "즉각적인 시행을 위하여 어떤 사안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진 장차관급이나 그에 준하는 분들이 오시면 더 좋을 듯하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 4월 21일부터 SNS에 '독도이야기'를 연재해 네티즌들의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독도이야기'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 70개 지역에서 '70개의 독도' 페스티벌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과 이에 대한 김장훈의 생각을 적은 일종의 칼럼이다. 김장훈은 이 글에서 '70개의 독도' 페스티벌이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의 비협조로 각종 난관에 부딪힌 경위를 설명하고 정부의 '아무것도 안 하는' 안이한 태도와 일본의 각종 로비 공작으로 인한 위험 등을 논리적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진짜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근혜 정부가 김장훈이 주최한 독도 간담회에 어떤 입장과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ocutculture@gmail.com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大蔵省告示第六百五十四號
會社經理應急措置法施行令第二十
一 朝鮮、臺灣、關東州、南洋群
二 千島列島
三 小笠原諸島及び硫黄列島
四 竹島
五 北緯三十度以南の南西諸島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광복 이후에

독도를 자국(自國)영토가 아니란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령 자료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해 12월 청와대에 보고한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 부령(府令) 24호'와 ▲1951년 2월13일 공포된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이었지만, 이번 자료는 이보다도 5년 앞선 것이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부속 도서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을 일본의 섬에서 제외했다.

http://cafe.naver.com/docdoinkorea/5267

독도사수연합회 회원가입원서

http://dokdomk.com (접수번호 : 독사연)

성 명		생년월일 (주민번호앞자리)		성별	남 · 여
연락처	이 메 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주 소					

본인은 독도사수연합회 회원으로 나라를 위하여 독도를 지키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성명 : (서명)

독도사수연합회 귀하

우편번호 : 611-828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43번길 12 부경빌딩 201호
TEL : 051-3363-114, FAX : 051-3363-112, HP : 010-6504-6510, ds5ean@naver.com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 독도사수연합회